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신협 중앙회장 당선

38.4% 득표 2030년까지 4년 임기…담양 출신 40년 금융 외길 ‘매칭 충당금 펀드’ 등 공약 신사업 중심 체질 개선에 주력 할 듯

고영철(66·사진)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으로 당선돼 오는 2030년까지 4년간 신협중앙회를 이끌게 됐다. 고 당선인은 후보 당시 ‘현장 중심’의 경영 가치관을 바탕으로 ‘매칭 충당금 펀드(가칭)’, ‘CU뱅크(가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의 경영정상화 등을 약속했던 만큼 다양한 신사업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위한 신협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고영철 후보가 784표 중 301표(38.4%)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유효표 784표, 무효표 0표를 기록했으며 투표율은 90.8%로 집계됐다.

이로써 고 당선인은 오는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 간 신협중앙회장 역할을 맡게 됐다.

고 당선인은 1959년 담양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광주·전남 토박이다. 1993년 20명의 발기인과 함께 광주문화신협을 창립했고, 실무 책임자를 시작으로 상임이사, 이사장까지 광주문화신협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신협중앙회에서도 사업위원회 위원,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을 담당하는 등 중앙회 이사로 활약했다.

고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조합의 경영안정화와 신사업 등을 통한 수익제고 등을 공약으로 발표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연계대출과 여신형 실적상품을 각각 연간 5조 원 규모로 집중 지원해 재무취약 조합들의 실질적인 수익 기반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앙회가 조합의 대손충당금을 함께 부



담하는 ‘매칭 충당금 펀드(가칭)’ 조성, 미래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 신협이 공동 출자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CU뱅크(가칭)’ 설립 등 다양한 재무건전

화 방안도 약속했다. 현재 신협이 운영하고 있는 ‘순회감독’ 제도를 10개 신협 단위로 묶는 ‘전담역’ 제도 도입, 여신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및 지역본부별 심사역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들도 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고 당선인은 신협 통합 멤버십 포인트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업무 분야별로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실버타운·각종 복지 의료사업 등 신협 복지타운 조성을 통한 수익 창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신협이 다시 현장과 조합원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과 성장 기반을 함께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회는 지역 신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여수산단 금융지원 ‘안갯속’ …구조조정 지연에 지역 불안감 커진다

자율협의회 감축대상 결론 못 내 산은 “기업 자율에…” 방향 선회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에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데다 핵심 과제로 꼽혀온 금융지원 논의마저 추가 설비 감축 대상을 정하지 못하면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50년 가까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석유화학 산업의 금융 지원 지연이 길어질수록 고용, 상권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천NCC 등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할 채권단 자율협의회는 아직 소집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연초부터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금융 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상은 여전히 정체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자율협의회가 먼저 꾸려진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에 이어 새해 여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천NCC를 중심으로 한 여수 산단 기업들이 ‘2호 금융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석유화학 기업 16곳

의 사업재편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여천NCC 3공장 외 추가로 어떤 설비를

감축할지를 두고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산단 사업재편안에는 여천NCC와 3공장 폐쇄,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중부 설비 통합·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지만 여천NCC 1·2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가운데 어느 시설을 추가로 닫을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논의가 장기화되자 산업은행이 추가 감축 대상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특정 설비 폐쇄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산은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수 산단과 달리 울산 산단은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스오일 등 3개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가동을 앞둔 에스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규모를 조율 중이어서 금융 지원 논의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혜택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같다.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로 주택세 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작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10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2월 28일 이후 받은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1588-0560)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2024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각각 2만 6557명, 전남 5만 7189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CES 2026’ 참가한 한전, 미래 전력 9대 신기술 선보여

한전관 K-전력 기술 경쟁력 과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국의 첨단 전력 기술을 결합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7일 한전에 따르면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CES2026에서 ‘한전관’을 운영 중이다.

한전은 이번 CES에서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전관에서는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한전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내용은 ‘몰입형 LED 실감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요약 영상’, ‘확장형 QR 코드 기반 기술상세 영상’의 4단계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속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이



CES 2026 한전 전시관 전경.

<한전 제공>

라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한전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며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 늘린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

국세청이 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힌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상인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자금 흐름을 도울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 1일부터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수집한 불편 사항을 분청·지방청의 납세소통지원단이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국제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현행 0.5~0.8%에서 0.15~0.4%로 인하한다. 지난달부터 적용 중으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 ‘그린캐뮼어’ 리뉴얼 출시 항산화·면역 관리 강화



(주)그린알로에는 “건강기능식품 ‘그린캐뮼어’〈사진〉를 리뉴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린캐뮼어는 유해 활성산소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제품이다.

그린알로에측은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해로운 환경에 의해 활성산소로 변하고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린캐뮼어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를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다.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조직 형성, 기능 유지, 혈 흡수에 필요한 건조효모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 인디언구스베리에서 추출한 비타민C도 주원료 중 하나다.

또 효모에서 추출한 글루타치온부터 프로폴리스, 차가버섯, 강황, 흑마늘, 영지버섯자실체, 브로콜리와 체리·블랙커런트·라즈베리·아로니아·크랜베리·블랙베리·블루베리가 함유된 7가지 베리농축액, 포도씨유, 아마씨유도 담고 있다.

그린알로에는 특히 전 제품에 중국산 원료를 함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캡슐 제형도 식물성 연질캡슐로 차별화했다.

정광숙 그린알로에 회장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과음, 과도한 운동, 잘못된 식습관, 지속적인 전자파·환경호르몬 노출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유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일상에서 항산화·면역 관리를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9일 강기정 시장 초청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9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해 올해 시장 방향을 확인하는 새해 첫 금요조찬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광주경총 포럼은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으로 경제·정치 인사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경총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AI) 분야와 미래차 모빌리티, AX(AI 전환) 실증밸리 조성, 문화 중심 도시 등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9497억원을 확보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새해에는 광주시 시장 방향에 맞춰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특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이나 회원 가입에 대한 내용은 광주경총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551.06	(+25.58)
▼ 코스닥	947.30	(-8.58)
▼ 금리(국고채 3년)	2.910	(-0.038)
▲ 환율(US D) 〈오후 6시 기준〉	1446.05	(+0.65)